

전 남



콩밭 매는 아낙네 강진 군통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최근 장맛비가 그친사이 콩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신기마을은 지난 1991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매주 등 장류를 생산, 연간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소설 '태백산맥' 배경 벌교 '보성여관' 옛모습 복원

창작·문화체험 공간으로

보성군 문화공원과 연계 활용

대하소설과 영화 '태백산맥'의 공간적 배경으로 잘 알려진 보성군 벌교 옛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 132호·사진)이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창작시설로 활용된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문화재보존 시민단체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최근 옛 '보성여관'의 복원과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확정짓고 실시계획에 들어갈 계획이다.

1935년에 지어진 옛 '보성여관'은 대지면적 529㎡, 건축면적 416.1㎡ 규모로 건물 외벽이 목재 비늘판 벽으로, 지붕은 일본식 가와라 마감된 일본식 2층 건축물이다.

또한 쌍여관이 문으로 된 여관 주출입문을 비롯해 다양한 모양의 유리창, 굴퓌 등이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보성여관은 광복 이후에도 여관으로 운영돼오다 1988년 여관영업을 중단하고 가게집포로 사용돼 왔으며 지난 2004년 12월 건축사적·문화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문화유산 매입사업의 일환으로 옛 보성여관을 4억6천만원에 매입해 현재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좌익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특별대장 임만수와 대원들이 숙소에 사용하는 '남도여관'으로 등장한다.

문화유산국민신탁과 보성군은 옛 보성여관 운영 컨설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사회적 소통거점 ▲벌교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거점 ▲벌교 지역문화 창출의 핵심공간으로 잡고 있다.

이에 맞춰 30여 명의 세월동안 수많은 증·개축으로



변형된 1층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뒤 갤러리와 카페로 활용하고, 건축 초기 연회장 등으로 사용했던 2층은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증축된 숙박공간은 리모델링해 보성여관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민박 체험공간으로 이용된다.

특히 여관이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 등장한 점을 고려해 문화와 전통미술 분야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소요되는 공사비 가운데 7억8천800만원이 보성군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신탁이 모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오는 12월에 시설계획 확정 후 입찰·발주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여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성을 복원하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복원된다"며 "보성군이 진행중인 태백산맥문화공원과 문화거리와 연계해 보존·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되었지만 훼손 위기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시민단체이다. /송기동기자 song@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장맛비로 바닷물 저수온·저염도 현상

기생충 감염 등 어류 집단 폐사 우려... 양식장 관리 철저

최근 장마로 바닷물의 수온과 염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류 양식장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21일 여수 수산기술사업소에 따르면 계속되는 장맛비 때문에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고 염도가 저하되면서 양식 어류에 생리적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커져갔다.

여수해역의 수온은 보통 20~21℃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2~3℃ 정도 떨어지고 31~32ppt(농도단위)를 유지해오던 염분농도도 현재 27.3ppt로 낮아지면서 양식어류들이 자치

생리적 장애 때문에 집단 폐사할 우려도 있다. 이는 어류들이 수온이나 염도가 급격히 저하하거나 상승할 때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또 세균성 질병이나 기생충 감염 등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업소 측은 대비책으로는 면역증강제와 영양제 등을 섞은 먹이를 주고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사육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조류 소통을 돕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낚은 사료는 부패하지 않도록 밀봉해서 냉장보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서민경제 위협 국제성 범죄

서해해경 1달동안 특별단속

서해 지방해양경항청은 밀수 등 국제성 범죄의 증가에 따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수입업체 및 도매상 위주의 단속활동과 소량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국제성 범죄인 마약 밀수,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범죄 등에 대해 강력 수사를 펼칠 예정이며, 소규모 보따리상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공조 강화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위주의 기획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곡성 전국 최대 장미원 개장 지연

장미수입·시공 차질로 두달 늦은 12월 완공

전국 최대 규모인 곡성군의 장미원 개장이 연말로 늦춰진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 옥곡면 오자리 섬진강가치마을에 내 2만여㎡ 부지에 조성하는 장미원이 당초 10월 완공에서 12월로 연기돼 본격적인 장미 감상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졌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세계적인

장미 전문육종회사의 신품종 1천4종을 식재하는 장미원 조성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장미수입과 시공 등에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수입하기로 한 장미 1천4종 중 375종이 수입돼 식재됐으며, 나머지 629종은 9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수입해 식재할 예정"이라며 "입공이 두 달 정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미원 공사가 늦어지면서 애초 총사업비도 49억원에서 53억원으로 4억원 늘었으며, 내년 5.6월경 장미가 개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장미원에 장미 외에 200여종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연못, 7m 높이의 폭포, 분수대, 야간조명시설, 식당, 미니기차, 대형연설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전통 이어갈 젊은 예술인들의 무대

보성국악예술단 '다향' 25일 창단공연

보성지역에 국악예술단이 창단됐다.

보성 국악예술단 '다향'(단장 문성훈)은 오는 25일 보성 실내체육관에서 창단공연을 갖는다. 차의 고향인 보성을 의미하는 '다향'은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을 전공한 20~30대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됐다.

이들 예술인들은 국악 관련악기와 서양 현악기, 전통무용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색다른 앙상블로 구성돼 신선하고 실험적인 전통무용, 국악가요, 창작 성악

등으로 장르를 넘어선 새로운 전통예술의 모습을 선사한다.

이날 창단공연은 다향 실내악단의 '패자지칭'을 비롯해 나בל레라 무용단의 신아리랑,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자탄하는 대목'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성훈(46) 보성 국악예술단장은 "21세기는 국가도 기업도 문화와 감성이 좌우하는 시대"라며 "녹차의 수도, 소리의 고향 보성의 예술인과 함께 국악예술단을 창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세일골

"더불어 잘사는 열린시정 실현 앞장"

장태기 광양부시장



"광양시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일 취임한 장태기 광양부시장장은 "떠오르는 산업도시인 광양시를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열린시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시장실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출신인 장 부시장장은 고흥농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과,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73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흥도덕장, 전남도 행정자치국 비상대책담당, 행정혁신국 혁신분과장, 관광문화국 스포츠 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숙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박영규기자 ykpark@

지역				읍면동				마을				리				마을				마을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지명	소지지	면적(㎡)	간격
북구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	신성동	신성리	152/46	2/4	191/41